"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전주시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즉각적 탄핵 사유, 내란죄 성립" 하야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겨울철 시민 안전·불편 해소 '최우선'

전주시, 자연 재난 대비 현장 행정

전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5일 덕진노인복지관과 덕진구 조경단로 도로 열선, 우아동 덕진도로관리소를 차례로 방문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한병삼 덕진구청장과 김재화 복지안전국장, 국승철 건설안전국장, 박정선 재난안전과장, 각 분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덕진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난방시설, 부대시설 등을 살폈다.

전주시는 5일 덕진노인복지관과 덕진구 조경단로 도로 열선, 우아동 덕진도로관리소를 차례로 방문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어 시는 송천중앙로와 백제대로를 연결하는 조경단로에 설치된 도로열선을 점검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주지역 열선 26개소(5624m)에 대해 강설 시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운영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는 해당 구역의 도로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포트홀 발생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우아동에 위치한 덕진구 도로관리소를 찾아 제설 장비 준비상태와 제설제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강설 예보 시 사전살포를 포함한 신속한 제설작업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겨울철 시민 안전 및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총 3곳의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등 주요 도로에 접근성이 좋은 종합경기장 철거부지에 장비와 자재, 인력을 배치해 도심 제설전진기지를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도로제설 대책 수립 △제설취약구간 점검 △한파저감시설 점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겨울철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8명 모집

전주시가 2025년 새해에도 저소득 청년과 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8명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전주시민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1단계 사업 기간은 내년 1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대상자는 △에코시티 임시주차장 관리 및 환경정비사업 △청년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63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무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1만3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옥기 기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지원 총력

전주시 완산구, 내년 2월까지 취약계층 집중발굴 기간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한파와 실업 증가,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에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완산구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두터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생계·주거·건강 등에 위험 요소를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도입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위기 알림 앱 △선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멤버십 △신속한 초기상담을 지원하는 AI 상담 △지역사회 안전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전·단가스·건보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담은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보 대상을 면밀히 살피고,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심층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공적·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생활 요금이 체납된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기 사유를 파악하고,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 등을 통한 적극 지원방안을 검토해 지원한다.

또한, 동 긴급 지원 담당자 일제 조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등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정확한 자격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겨울에도 동절기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긴급 지원 이후에도 지속된 위기 상황을 확인할 경우 민간기관 지원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방침이다.

동시에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나눔'도 추진한다. 구는 완산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해마다 연말 연시에 진행되는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의 모금접수 창구를 개설, 일반시민·단체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저소득층 명절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지원된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위기가구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꼼꼼하게 살피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나눔문화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대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구는 지난달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설해대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는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 차량 19대와 제설 장비 50대 등 총 69대를 투입하고, 염화칼슘 859톤과 소금 1386톤 등 제설 자재를 확보해 철저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임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모래주머니 1만7000여 개를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와 경사로, 교량 등 20개 구간에 제설함(72개소)과 모래주머니(6096개소)를 배치하고, 주민센터에 제설제를 배포하는 등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취약지까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올겨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폭설이 우려되는 만큼 도로 결빙이나 빙판길로 인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제설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제설 취약구간 사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형살포기의 작동상태 점검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제설작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